

## 소통과 협치로 강릉발전의 밑그림 그려 나가겠습니다

의정 초대석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 등 다선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강릉 시의회를 지켜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힘을 합쳐 슬기롭게 잘 이겨내 주셨던 시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 강릉을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부족함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시의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성과와 후반기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의정 기조로 정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1조 원대에 이르는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고민도 깊었고 당리당락을 떠나 균형을 이룬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18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습니다. 1조 원대에 이르는 예산심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총 326건에 달하는 안전 심사처리, 자유발언 35건, 시정 질문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 등이 그러한 성과를 반증하는 것이겠죠?

후반기에는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혜가 절실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제11대 전반기의 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발로 뛰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시의회라는 곳은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대의기관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치를 통해서 강릉발전의 밑그림을 함께 그릴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역할에 집중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9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등 의정 기간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요,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시민의 힘을 모아 지역의 숙원이었던 KTX 강릉선의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일원화하고 연탄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연탄 가격 동결을 끌어냈습니다. 주민생존권,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며 상생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과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일들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체찍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풍, 산불,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종식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더 힘든 시련들도 꼭 함께 이겨냈던 우리 시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㉔

##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칠 것

의정 초대석

이재안 강릉시의회의 의원

11대 전반기 시의회 부의장 등 다선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강릉시의의회를 지켜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1998년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시기에는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정비가 미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과 의회 활동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기본 생각으로 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다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정 질문과 강도 높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여 강릉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애를 썼습니다. 후반 기에도 강릉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릉시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현재 두 현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릉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청정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역할을 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과 강릉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친환경발전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군항공 소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군 소음법 시행을 통해 소송이 아닌 신청만으로도 군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소음법 시행령에서는 피해 보상 소음측정 기준을 80웨클로 적용하고 있는데, 민항기에 의한 피해 보상은 75웨클로 적용되고 있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방음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 소음법은 피해 주민지

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담당 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제4회 강원의회정봉사상’을 받기도 하셨는데,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강릉 군비행장 소음 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역임)를 발의하여 의회 내에서 군용비행장 관련 사항을 의제로 다뤘던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을 결성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군항공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항공소음 피해보상액 1,000억여 원과 미수령보상금 100억여 원을 피해자를 찾아서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항공소음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지난 1월 20일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길어지는 단절로 인해 사람들의 우울감도 커진다고 하는데 ‘온택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교류’라고 합니다. 자연과의 교류, 문화생활, 취미,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하여 마음 채움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릉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㉞

## 강릉시의회 뉴스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 >>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용 의원

####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지원 근거를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제1항 제2호)

####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와 양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 제4조) 및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등 지원 (다)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발의 윤희주 의원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 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 가능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내용 추가 신설(안 제4조~제5조) (다)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무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4조) (라) 관광업무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활성화 사업지원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안 제4조 제1항) (나)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조 제3호, 안 제3조 제1항, 안 제5조 제1항 제4호)

결의문 - 제1차 본회의(2020. 11. 25)



대표발의 김미랑 의원

####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수리비용 등의 지원, 지원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보장구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수리 센터 위탁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리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대표발의 정규민 의원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

제안이유 문화도시의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임.

강릉시는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상향식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혁신과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이송처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강릉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강릉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강릉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의회 정책 및 연구회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10명에 임기는 2년이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건전한 정책제안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한층 더 노력할 방침이다. ㉔



지난 1월 18일 열린 의장단 회의



지난 1월 21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5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희문 의장은 강릉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이를 '행복한 강릉! 안전한 강릉! 강릉시의회가 만들어 갑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집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강희문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 김상원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㉕



강릉시의회는 지난 1월 4일 신년참배를 시작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희문 의장이 지난 1월 8일 KBS라디오 '정보쇼'에 출연해 2021년 의정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